

“인력 넘겨주는 자치경찰제 반대” 집단 반발

국가 소속 제주경찰관 715명 법안 처리 앞두고 주장 “인력 이관시 치안 공백 커져… 자치경찰 자체 충원을”

제주자치경찰단의 존치 여부를 가를 법안 심사를 하루 앞두고 제주에서 근무하는 국가경찰관들이 인력을 넘겨주는 방식의 자치경찰 모델이 도입되면 치안 공백이 커진다는 집단 반발하고 나서 법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제주지방경찰청·제주동부·서부·서귀포경찰서 직장협의회(이하 제주경찰 직장협)는 30일 지방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제주자치경찰단은 조직 존치를 넘어 국가·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운영을 위해 (자치경찰단에) 파견된 국가 경찰을 모두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기가 찰 노릇”이라며 “제주자

치경찰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자치경찰 스스로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경찰 직장협에는 제주에서 근무하는 국가 소속 전체 경찰관 중 43%에 이르는 715명이 가입돼있다.

제주경찰 직장협은 “국가경찰은 112출동 외에도 범죄 예방, 수사, 치안 정보 수집, 경비 등의 업무를 동시에 담당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자치경찰로 국가경찰 인력을 이관하면 업무 부담이 증가하며, 이같은 국가 경찰 인력난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이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제주경찰 직장협은 “왜 치안 공백과 도민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국

가경찰 인력을 이관 받아 자치경찰 몸집을 키우려 하느냐”면서 “이 이야기는 자치경찰단 자체 인력만으로는 자치경찰제도를 시행할 능력이 없다는 뜻 아니냐”고 꼬집었다.

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018년 4월 자치경찰제도 전국 확대 실시에 앞서 시범적으로 생활안전·질서, 여성청소년, 교통 외근 등 3개 분야 치안사무를 자치경찰로 넘기고 국가경찰을 단계적으로 자치경찰에 파견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제주자치경찰단에 파견된 국가경찰은 268명이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경찰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행안위는 이번 심사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경찰법 개정안의 내

용을 서로 조율해 합의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김 의원이 발의한 경찰법 개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하나의 기관(지방경찰청, 경찰서)으로 통합해 경찰 조직을 일원화하는 대신, 사무 영역을 국가 경찰 사무와 자치 경찰 사무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정으로서 독립된 지위를 부여 받은 제주자치경찰단은 국가 경찰에 흡수돼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그러나 제주도와 도의회의 계속된 존치 요구에 현재는 자치경찰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번 심사에서 국가 경찰 인력을 자치경찰단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도내 미용실 10년새 갑절 가까이 늘었다

2010년 758곳→올해 1469곳

제주지역 미용실이 10년 동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행정안전부와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등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제주지역 일반미용업으로 분류된 미용실 점포 수는 1469건으로 2010년 대비 93.8% 증가했다. 전국 미용실 점 포수는 11만여개로 10년 동안 약 28%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도내 미용실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758곳, 2011년 792건, 2012년 841건, 2013년 891건, 2014년 952건, 2015년 1026건, 2016년 1105곳, 2017년 1199곳, 2018년 1302곳, 2019년 1398곳 그리고 올해 1469곳 등이다.

인구 1만명당 미용실 점포수는 제주가 21.9곳으로 전국 평균 21.3곳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인구 1만명당 점포 수는 대구가 26.0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주(25.4곳), 경북·전북(25.1곳), 강원(24.7곳), 울산(24.4곳), 대전(23.3곳), 부산(23.2곳), 충북(23.1곳), 경남(22.9곳), 제주(21.9곳), 전남(21.7곳), 충남(21.6곳), 인천(19.9곳), 서울(19.5곳), 경기(18.3곳), 세종(13.2곳) 등이다.

미용실의 창·폐업률은 연도별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전국적으로 최근 5년간 창업률은 9.2%에서 8.2%로 소폭 감소한 반면, 폐업률은 5.9%에서 6.2%로 증가하며 폐업이 창업보다 조금씩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용실의 폐업률은 인건비·재료비 등 고정비가 상대적으로 적어 폐업률은 타 업종 대비 낮은 수준이다.

실제로 타 업종 폐업률을 살펴보면 PC방은 15.7%, 커피숍 14.4%, 제과업 13.0%, 헬스장 7.6% 등이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광해군 파란만장 제주이야기 제주도, 테마상품 개발 눈길

제주에서 유배생활을 한 유일한 왕인 광해군의 파란만장한 제주 유배생활을 담은 테마상품이 개발되면서 화제다. 이를 통한 제주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원도심 도시재생 마중물사업의 일환으로 제주와 광해군을 연계한 ‘2020 으라차차, 어쨌든 원도심’ 지역상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 ‘광해, 빛의 길을 걷다’ ▷ ‘원도심 광해 요리사(광해군 테마 레시피)’ ▷ ‘광해군 테마 기념품 및 체험프로그램’ ▷ ‘으라차차, 어쨌든 원도심 캠페인’ ▷ ‘온라인 토크-원도심 광해를 만나다’ 등 크게 5가지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

‘원도심 광해요리사’는 지역 내 음식점과 카페 등 7개 사업장이 참여해 각종 문헌을 바탕으로 광해군이 즐겨 먹은 것으로 알려진 파매기와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에 나왔던 단팔죽 등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해 판매하며 인기가.

광해군이 쓴 시를 새겨놓은 유리 문진, 광해손수건 등의 기념품과 체험 프로그램인 광해당청 리사이클 벽시계 체험키트 등의 콘텐츠 상품들도 만나볼 수 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가공용 감귤 수매... 줄지은 차량 30일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의 한 감귤가공공장 앞 도로에 가공용 감귤을 가득 실은 차량들이 수매 순서를 기다리며 줄지어 서 있다. 강희만기자

동물테마파크 측, 반대 주민에 손해소

사업자 측 “사업 지연” 반대 측 “소송으로 겁박”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측이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반대대책위원회(이하 동물테마파크반대위)에 따르면 (주)제주동물테마파크 서경선 대표이사는 선홍리 주민 3명을 상대로 지난 16일 5000만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동물테마파크반대위가 공개한 손해배상 소장에 따르면 서 대표이사는 피고들이 2019년 12월 10일 열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참석대상이 아님에도 무리하게 회의장을 점거해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사실 확인 요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환경보전방안 이행계획서 검토절차가 약 11개월 진행되지 못하게 하는 등 사업을 지연 시켰다

며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동물테마파크반대위는 같은날 입장문을 발표해 “사업자 측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소송으로 주민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회의장에 들어가 사업자 측이 제출한 이행계획서의 허위 사실에 대한 의견과 증거를 제시한 것”이라며 “사업 지연은 1월 원회록 제주도지사가 제안한 ‘반대 주민들과의 갈등영향분석을 위한 협의 진행’과 ‘코로나19 확산’ 때문이지 주민에게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상민기자

저소득 취약계층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서귀포시 내년 2월까지 강화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작업이 강화된다.

서귀포시는 내년 2월까지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집중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점 발굴 대상자는 코로나19로 휴·폐업이나 실직일용근로자 등 소득 단절이 우려되는 가구, 난방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빈곤층 및 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가구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이다.

특히 홀로 사는 취약노인, 장년층 1인가구·노숙인·장애인 등 고위험군 가구는 소관부서 및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에서 자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계획을 수립, 인적자원망인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우리동네상촌돌봄모임과 협업을 통해 가구 안부 확인 및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생활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요양시설 거주 어르신·중증장애인·취약아동 등이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내년 1월까지 혹은 대비동파·난방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화재 대비 전기·가스·소방시설 관리실태 및 재난 시 비상대비대책 등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서귀포시 지역 내 읍면동에서도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 겨울나기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현영희기자 yjhyeon@ihalla.com

노형서 경차-오토바이 충돌... 1명 숨져

제주시 노형동에서 경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제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9시 22분쯤 제주시 노형동 노형오거리에서 수목원 방면으로 향하던 경차가 롯데마트 인근에서 유통하던 중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20)씨가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운전자는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호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SM그룹 에스엠신용정보

고민하지 마시고 **에스엠신용정보**를 선택하십시오!
만족으로 보답해 드립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부동산대금, 투자금, 빌려준돈(판결문, 공증), 약정금, 구상금, 계돈, **생각만 해도 머리아픈 돈, 돈! 최선을 받아줍니다**

고객님 언제든지 전화, 방문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며 착수금(선불경비)일체 받지 않습니다

에스엠신용정보 제주지사 ☎ 064)756-9041

직원모집 추심관리사, 영업전문직을 모집합니다 064)756-9041

진영기업(주)제주지점 10주년 기념 감사행사

화분화 촉진 액션p

착색제 FS338

비대제 옥제늘

5L 주문시 1L 증정

판매처 : 제주대리점(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233-6) 대표 김달식 010-3697-5624

예언의 집

권

운세, 운명을 기도(도법)로 정성으로 풀어 드립니다.

직접상담 010-5736-6951